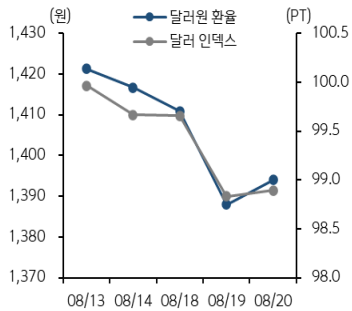


기교가 시장심리에 미치는 기간?

외환시장



FX Talk : 금일 1,388~1,401원 전망

동향 미국 재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바이백 발표에 미국 장기채 금리는 떨어졌고 미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했습니다. 이에 원화 환율은 전일 1,385원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환율의 하락이 다소 과도했던 영향인지 이내 환율은 다시 1,390원 대로 올라왔습니다. 바이백 발표 효과가 감소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발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망 중동 지역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채 금리에 대한 시장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크게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금일 원화 환율의 상단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치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388	1,401
달러엔	158.7	159.3
유로달러	1.165	1.170

FX Insight : 기교로, 시장심리와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베센트

엔화 약세와 함께 다시 시장의 관심을 끌게 된 미국 장기채 상승에 대해 미 정부 역시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도 하듯, 베센트 재무장관은 2일 전, 9월부터 11월 초까지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백*의 규모를 최소 2배 가까이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흥미로웠던 것은 미 정부가 장기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발송했다는 점도 있지만, 그 시기가 이달 5일 국채 발행계획(QRA)이 발표되고 그 다음 계획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이 발표를 미국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였는지 혹은 장기채 공급 조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은 일단 발표 직후에는 발표에 반응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2배 이상 늘어나는 규모 자체는 전체 미국채 시장 규모에는 상당히 작은 수준이며 따라서 미국채의 하향 안정화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 자체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규모와 향후 채권 발행에 대한 논의는 가외로 치더라도, 재무부의 바이백의 발표 시점이 조정되었을 뿐 그 적용 시점은 9월이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다소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고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구조나 규모가 본질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은 부족하기에 간밤 미국채 금리는 반등했습니다.

일본 엔화 매입이란 메모를 노출한 것과 갑작스러운 바이백 규모 조정 발표 등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보자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그의 기교가 장기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은 벌었을 수 있습니다.

* 미 재무부가 금리 안정시키고 유동성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가 시중에 있는 장기채를 다시 매입하는 정책

Key Chart

<미국채 금리>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387.0	206.4
고가	1,396.6	207.7
저가	1,384.1	205.8
종가 ¹⁾	1,392.6	207.1
전일비	-5.1	-0.4
평균환율	1,393.0	207.4
NDF(1M)	1,394.2	
거래량	165(억불)	170(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394.05	6.10
JPY/KRW	876.63	-1.38
EUR/KRW	1,628.51	6.89
GBP/KRW	1,900.78	11.14
AUD/KRW	991.87	2.51
CAD/KRW	1,011.37	5.63
USD/JPY	159.05	0.88
EUR/USD	1.1678	0.0001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²⁾	전일비
1Y	3.458	0.017	3.270	-0.02
2Y	3.746	0.030	3.415	0.00
3Y	3.861	0.020	3.515	0.00
4Y	3.925	0.009	3.575	0.00
5Y	3.977	0.001	3.605	-0.01
7Y	4.049	-0.009	3.655	-0.01
10Y	4.119	-0.010	3.550	-0.01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94	0.00
통안 1년	2.18	+0.01
통안 2년	3.73	+0.04
국고채 3년	3.82	+0.04
국고채 5년	4.07	+0.01
국고채 10년	4.32	-0.01
국고채선물(3년)	103.18	-0.04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35	10.00	3.36%
3M	-165	20.00	3.27%
6M	-460	0.00	3.23%
1Y	-930	20.00	3.34%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³⁾	전일비
1Y	3.98	0.005	3.98	0.018
2Y	4.19	0.017	4.05	0.025
3Y	4.27	0.023	4.07	0.032
5Y	4.39	0.025	4.12	0.044
10Y	4.70	0.000	4.30	0.053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6,852.58	+381.41	+5.89%
미국 DOW	52,759.21	-703.84	-1.32%
중국 상해종합	3,903.72	+9.30	+0.24%
일본 NIKKEI 225	66,216.79	+890.37	+1.36%
영국 FTSE 100	10,748.16	+4.81	+0.04%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86.83	+1.00
금 (선물)	4,516.30	+150.30
3M TERM SOFR	3.74	+0.01
3M EURIBOR	2.49	-0.01
KOR 5Y CDS	22.27	-0.08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